

다영푸드

코로나19 이슈로 내수 시장 하반기에도 불확실 해외시장 본격 개척... 수출로 '코로나 극복'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다영푸드(대표이사 김대식)가 3월에 이어 또 한 번 수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3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추진하게 된 다영푸드는 훈제오리에 이어 오리주물럭과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품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테스트를 계획 중에 있다.

다영푸드 김대식 대표는 “코로나19 이슈로 내수 시장이 전반기 내내 암울했고,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자 한다”며 “금번 수출을 통해 철저한 시장테스트와 검증으로 중동시장에서 판로를 넓혀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수출의 소감을 밝혔다.

다향오리

100% 국내산 오리고기로 만든 신제품
'촉촉한 훈제오리 매콤한맛' 출시

국내 대표 오리고기 브랜드 다향오리에서 100% 국내산 오리고기로 만든 신제품 '촉촉한 훈제오리 매콤한맛'을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 출시한다.

신제품 촉촉한 훈제오리 매콤한맛은 참나무 훈연으로 오리고기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촉촉한 육즙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매콤한 특제 소스가 풍미를 한층 살렸다. 또한 오리고기를 5mm로 슬라이스해 한입에 먹기 좋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식감까지 더했다.

다향오리 촉촉한 훈제오리 매콤한맛은 1인 가구, 집밥족 등을 위해 200g씩 총 네 팩으로 개별 포장되어 보관이 쉽고 개봉한 뒤 불판이나 프라이팬을 이용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촉촉한 훈제오리 매콤한맛은 정해진 레시피 이외에도 다양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다"며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환절기에 온 가족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